제69호 2018년 10월 10일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Contents

- 통계로 본 이슈
  - 러시아 수출대상 국가 1위, 중국이 차지
- 전문가 칼럼
  - 21세기 푸틴의 러시아, 왜 신동방정책인가?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중국-러시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상회담 실시
  - 머스크 사(社), 북극항로를 통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 성공적 종료
  - 러시아, 중국의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 지속 전망
  - 중국 철도 공사, 최우선 시장 진출지역으로 극동 러시아 지목
  - 2018년 1월~9월 러시아 수산물 어획량 전년대비 약 5.7% 증가
  - 러시아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 약 2,780억 루블 예산 계획
  - 베르케옌코 블라디보스톡 시장 돌연 사퇴···12월 차기 시장 선거
- 주요 통계
  - 2017년/2018년 1~8월 운송수단별 물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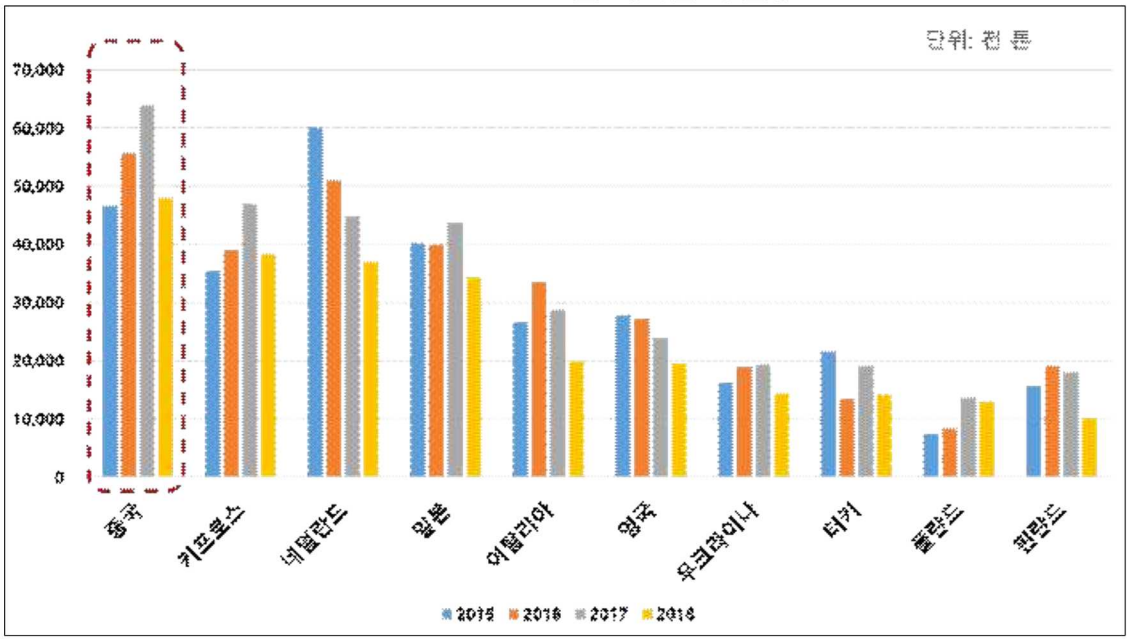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총괄: 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 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 김엄지 연구원

통계로 본 이슈

러시아 수출대상 국가 1위, 중국이 차지

2015년~2018년 8월 국가별 수출량



자료: https://cargo-report.info/stat/export-cargo/(검색일: 2018년 10월 10일)

- 2015년 이후 러시아의 수출대상국 1위는 중국으로, 특히 목재, 광물, 석유 등 에너지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분야 협력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
  - 특히 목재자원의 경우 러시아 총 수출량의 63.1%, 광물은 총 수출량의 22.2%를 중국이 수입하여 수출국 1위를 차지함
  - 또한 올해 1월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두 번째 송유관이 가동되면서, 중국은 최대 원유수출국으로 부상했음
- 9월 개최된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또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중러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함

-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러 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협력은 가속화 및 확대되고 있음
  - 중러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및 양군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9월 실시된 러시아의 '보스톡 2018' 군사훈련에 중국군이 참여한 바 있음
  - 또한 중국 자체기술로 건조한 첫 극지과학탐사용 핵추진 쇄빙선으로 북극지역에서 자원 탐사 및 채취 등 중러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https://cargo-report.info/stat/export-cargo/(검색일: 2018년 10월 10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전문가 칼럼

21세기 푸틴의 러시아, 왜 신동방정책인가?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푸틴, 신동방정책의 닻을 올리다

'신동방정책'(Новая восточная политика: Поворот на Восток)은 21세기 러시아의 국가발전 원동력을 유럽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아시아 방향에서 찾는 푸틴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일컫는다. 2000년 5월 옐친에 이어 크렘린 권좌에 등극한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과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른바 '신동방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1)]

2012년 5월 푸틴 집권 3기에 이르러 신동방정책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단일시장 건설"을

1) 이재영,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과 협력방향," 2015 한러정경포럼 발제문(2015.12.04.), p. 68.

목표로 한 '유로-퍼시픽(От Атлантики до Тихого океана)'이라는 개념 하에 더욱 구체화되었고 가속화되었다. 실제로 푸틴 정부는 유로·태평양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랄너머 동쪽으로 국가발전 중심축 이동을 모색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태지역에서 공고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입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5월 연방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이례적으로 신설했다. 동년 9월에는 영토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13년에는 철도, 에너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무려 약 3,461억 루블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극동·바이칼지역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 2025'(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를 채택했다. 2013년 8월에는 극동 연방관구를 관할하는 대통령 전권대표에게 연방정부 부총리 직을 겸직하게 했다. 이 모두는 극동지역 개발을 향한 푸틴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신동방정책의 견인차로서 동방경제포럼

극동 개발의 전초기지는 '블라디보스토크'이고 플랫폼은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F)이다. 동방경제포럼은 해외투자 유치와 아태지역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연방 대통령 칙령 250호에 근거해 2015년 창설한 연례 국제포럼이다. 2018년 올해 4회째를 맞이한 EEF는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의 극동: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며(The Russian Far East: Expanding the Range of Possibilities)'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4차 동방경제포럼

자료: http://www.yandex.ru(검색일: 2018년 10월 10일)

동방경제포럼은 2015년 1차 포럼에서부터 신개념의 공세적 투자유치 정책을 제시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일종의 경제특구로서 18개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일원 포함 5개의 극동 항구를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각종 세제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푸틴 대통령은 매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와 'buy Russia'의 홍보 수장(首長)을 맡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은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 및 강화하는 정치적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 동방경제포럼은 해를 거듭할수록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 협의 기구로서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2018년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EEF에 참석해 푸틴의 신동방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6년 이래 3년 연속 푸틴의 초청에 응했다. 한국도 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2017년 문재인 대통령, 2018년에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했다.

비록 성사는 되지 못했지만 푸틴은 이번 4차 EEF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동시에 초청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와 함께 EEF는 논의 주제가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을 매개로 갈등관계에 있는 역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불러들여 논의하는 외교·안보의 장(場)으로까지 넓혀지고 있다.

신동방정책 추진 배경과 동인

그렇다면 21세기 푸틴의 러시아가 EEF라는 플랫폼을 토대로 신동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과 동인은 무엇인가?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추동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아태지역이 21세기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크렘린 전략가들의 명료한 인식을 지적할 수 있다. 아태지역은 이미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7%, 교역량의 48%를 차지하는 지구촌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했다. 극동과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대국이고, 당장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자본, 첨단 제조기술, 시장을 구비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신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제공하는 경제적 번영과 국가적 웅비의 기회를 잘 포착해 현재화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방벡터와 지정학적, 지경학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식어가는 러시아의 대내외적 국가발전 동력과 모티브를 이제 아태지역에서 찾아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신동방정책이 태동한 중요한 배경일 것이다.

에너지 수출 노선의 다변화 필요성 증대도 모스크바의 외교적 시선을 아시아로 돌리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서구와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럽이 전략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수입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에너지 먹는 '하마'가 몰려있는 동북아는 에너지수출의 대체시장으로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이 되어가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러시아 수출의 70%, 재정수입의 5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미래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경제구조를 유럽중심에서 아시아 시장중심으로 탈바꿈해야하는 이유다.

여기에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의 '왕따'가 러시아의 동진을 가속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구의 제재로 악화된 서쪽에서 막힌 대외적 활로를 동쪽에서 돌파해보겠다는 전략적 포석도 있다.

인구 희박지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몰려드는 한족들의 인구삼투압도 인구안보 측면에서 신동방정책을 견인한 동인이다.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극동지역에 늘어나는 중국인들의 불법이주와 러시아 극동경제의 중국 종속화 현상의 심화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극동지역 개발과 동부러시아 수도로서 블라디보스토크의 거점화는 이곳의 인구유입을 늘리고 경제 및 안보 주권을 공고히 하는 최상의 방책이다.

이밖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원의 보고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 없이는 과거와 같은 초강대국으로의 웅비가 어렵다는 인식,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동·서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새로운 무역로로서 북극개발과 북극 항로 개척 필요성 증대 등도 신동방정책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를 향한 창(窓)'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는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서구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강력한 의지의 상징으로 유럽과 가장 가까운 영토의 서쪽 끝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 서구의 선진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소위 "유럽을 향한 창"으로 활용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 푸틴의 러시아는 극동 개발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세력으로서 공고한 '닻'을 내리고 영토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를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필요한 물적 기초를 수혈 받는 "아시아를 향한 창"으로 만들고자 한다. 최근 푸틴이 동쪽을 자주 찾는 이유다.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중국-러시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상회담 실시

- 지난 9월(11일~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정상회담을 실시함
  - 중국 당국이 9월 발표한 올해 1-8월의 양국 교역액은 6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고, 연말까지 1,000억 달러로 예상함
  -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 기간의 대(對)중 수출액이 363억 달러(전년 대비 38.5%증가), 수입액 311억 달러(전년 대비 +13.5%증가)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극동러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9월 12일 동방경제포럼 전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극동지역 투자 사업은 총 30건으로 약 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함
  - 실질적으로 중국은 극동러시아 진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 중국의 Sinomec사(社)는 나홋카 비료공장의 메탄올, 비료 제조 등의 프로젝트 참가를 표명함
    - · Cofco Coca-Cola Beverage Ltd는 캄차카주에서 생수를 제조, 중국 국내에서 판매 중으로 향후 극동 및 바이칼 지역에서 생수 제조공장 건설에 60억 루블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 Dalian Wenlian Aquaculture사(社)는 현재 연해주에서 1300ha 규모의 가리비 양식을 실시 중으로 향후 극동개발펀드의 출자를 받아 4,000ha, 50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임
    - · Yantai Tongxiang Foods사(社)는 연해주에서 현재 1,100ha 규모의 해삼과 가리비 양식을 실시 중으로 향후 13억 루블을 투자하여 5000ha로 확대, 연어양식도 추진할 계획임
    - · Pingmei Shenma Energy Chemical Group과 이르쿠츠크 석유회사는 건설비용 57억

달러 규모의 천연 가스·석유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함

- 극동러시아 제조기업 진출에 따른 물류 인프라 개발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 중국 Harbin Dongjin Group은 하바롭스크 지방에 곡물을 수송하기 위한 2900만 달러 규모의 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 극동러시아 해운회사인 FESCO와 ZIH(허난 성)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정저우시를 연결하는 화물수송열차 운행을 합의함
  - · Dongfang Group은 하얼빈에서 무단장을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음(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 180Km, 약 70억 달러 예상)

▪ 중-러 양국은 2018-2019년을 양국의 지방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이번 포럼에서도 9개 중국 지방 정부, 13개의 러시아 정부가 참여 다양한 프로젝트의 합의가 이루어짐

-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 발전을 추구하는 러시아 측과 일대일로 정책에 러시아를 참여시키려는 중국 측의 이해관계가 부합한 것으로 평가됨
-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양국의 구체적인 협상 및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https://news.biglobe.ne.jp(검색일: 2018년 10월 10일)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머스크 사(社), 북극항로를 통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 성공적 종료

- 머스크 사(社) 소속 Venta호는 지난 9월 28일 상트 페테르부르크항에 도착함으로써 약 5주에 걸친 북극항로 시범운행을 종료함
  - 부산항에서 전자제품, 보스토치니항에서 러시아산 수산물을 선적한 Venta호는 지난 8월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출발하여 북극항로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향함
  - 해당 선박은 길이 200m의 3,596TEU급 규모로 –25℃ 기후에서도 항해가 가능하도록 건조됨. 단 쇄빙선과 함께 운항해야 함
  - Venta호는 북극해를 통과한 최초의 컨테이너선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향후 유럽 발트해 내 피더 서비스에 투입 될 예정임

브레머하벤항을 항해중인 Venta호

자료: Daily mail(https://www.dailymail.co.uk)

Venta호의 항해한 루트

자료: Daily Star(https://port.today)

- 머스크 사(社)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항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아직까지 상업적 운항 항로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 머스크 관계자는 이번 북극항로 운항을 통해 선박의 시스템 테스트와 승무원들의 북극항로 운항 경험에는 좋은 기회였으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동-서(극동-유럽 간) 항로의 대신하는 상업적 항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 현재까지 Venta호(약 42,000톤)와 같은 대형선은 시베리아 북부 해안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북극항로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소형선박에 한해 여름철 얼음이 녹는

3~4개월 동안만 운항이 가능했음

- 현재 북극항로는 연간 항해가 불가능하고 쇄빙기능을 탑재한 선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단축된 거리로 항해가 이루어지고 해적 공격 위험이 없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음

▪ 러시아는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를 대신할 수 있는 북극항로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중

- 2019~2021년 예산안에 북극항로를 개발을 위한 4억 5,700억 달러(400억 루블)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선박 통행량 확대를 위한 항만 인프라 시설 개발과 쇄빙선 건조를 중점적으로 추진 할 예정임
-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북극의 일부 항로가 연중 내내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함
-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노선이 세계 해운시장의 간선항로가 되길 바라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북극항로에 유망한 항해 루트를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함

▪ 반면 러시아는 북극해를 포함하는 러시아 해역 통행 시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만 항해가 가능하도록 규제할 방침

- 최근 러시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자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제외한 선박이 러시아 해역을 항해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자국 조선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북극해역도 포함되어 있음
-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선종(Ship type)에 따라 일부 선박은 북극해 통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나, 그 초기라는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일부 허용되는 선박은 어떤 선종이 포함되는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음

참고자료 : Daily mail(https://www.dailymail.co.uk) Port Today(https://port.today)
(검색일: 2018년 10월 4일)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러시아, 중국의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 지속 전망

- 러시아-중국 간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건설된 신규 송유관(Power of Siberia Pipeline)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기존 송유관과의 연결 및 공급을 위한 계약 준비 단계에 도달함
  - 중국 국가 에너지 관리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국장인 Nur Bekri에 따르면 신규 송유관 건설을 통해 연간 30bcm 이상의 천연가스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통해 러시아가 중국에 공급하는 전체 천연가스는 신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양을 포함하여 연간 약 80bc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송유관의 길이는 약 3,000㎞에 이르며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을 통해 중국 하얼빈으로 공급될 예정임

-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와 협약을 통해 2019년 말부터 30년 동안 연간 30bcm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을 체결한 바 있음
  - 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중국의 CNPC社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사(社)는 시베리아의 동쪽 송유관을 통한 가스 공급 및 개시 시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음
  - 2019년 상반기에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미국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2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는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중국 간 주요 가스 운송 경로

자료: contropiano.org(검색일: 2018년 10월 5일)

참고자료 : https://www.rt.com/business/439105-russia-chinas-gas-exporter/ (검색일: 2018년 10월 5일)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중국 철도 공사, 최우선 시장 진출지역으로 극동 러시아 지목

-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공사(CRC;China Railway Group)는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이자 회사의 핵심사업 확장을 위한 최우선 시장 중 하나로 극동지역을 지목함
  - CRC대표 장중얀(Zhang Zongyan)씨는 극동지역은 철도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리 및 기타 운송 인프라 네트워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힘
  - 그는 "중국은 글로벌 해운 항로 전략을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CRC대표는 중국 기업들이 극동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첨단 기술, 장비 및 기술전문가들을 배치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전략의 이행 및 중국 동북지역과 극동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CRC 사(社)와 러시아 교통부 및 극동개발부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함
  - CRC사(社)는 헤이롱장성과 지린성 지역과 극동러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운송회랑인 프리모리예-1과 프리모리예-2 재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중국철도공사는 1950년에 설립되어 중국의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담당하며 현재까지 90,000km의 도로와 10,000km 이상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함

참고자료 :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china-rail-targets-russian-far-east-priority-market.html/(검색일: 2018년 10월 6일)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2018년 1월~9월 러시아 수산물 어획량 전년대비 약 5.7% 증가

- 2018년 9월 11일 기준 러시아 수산물 어획은 약 37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5.7% 증가함
  - 극동지역의 어획량은 약 26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22만 톤 증가함
  - 대구 어획량은 약 9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4,000톤 증가했으며, 태평양 연어의 경우 약 61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28만 8,000톤이 증가함
  - 반면 명태 어획량은 약 14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34,000톤 감소함

러시아 수산물 어획량(2018년 9월 11일 기준

지역	어획량(전년대비 증가량)
극동	약 260만 톤(+약 22만 3,300 톤)
북부	약 48만 2,000 톤(+약 46,000 톤)
서부	약 5만 5,400 톤(+약 1,920 톤)
아조프-흑해	약 4만 8,700 톤(-약 9,400 톤)
볼가-카스피해	약 3만 1,400 톤(-약 4,500톤)
배타적 경제수역 등	약 16만 4,000 톤(-약 57,000 톤)

자료: http://portnews.ru/news/264408/(검색일: 2018년 9월 23일)

참고자료 : http://portnews.ru/news/264408/(검색일: 2018년 9월 23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러시아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 약 2,780억 루블 예산 계획

- 러시아 연방 정부는 향후 3년간 새로운 운송 시설 및 선박 건조 등을 위해 개발기금으로부터 약 2,777억 790만 루블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임
  - 개발기금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지역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연도별 계획된 예산은 다음과 같음: 2019년 약 582억 2,930만 루블, 2020년 약 1,286억 5,830만 루블, 2021년 약 1,286억 5,830만 루블
  - 또한 향후 3년간 약 1,439억 100만 루블이 내륙수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본 자금을 통해 40개의 공항과 18개의 도로, 선박, 교각 등이 건설 및 재건될 계획임

러시아 내륙수운 선박

자료: http://morvesti.ru/detail.php?ID=74134(검색일: 2018년 9월 23일)

참고자료 : http://morvesti.ru/detail.php?ID=74134(검색일: 2018년 9월 23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베르케옌코 블라디보스톡 시장 돌연 사퇴···12월 차기 시장 선거

베르케옌코 블라디보스톡 시장

자료: www.ria.ru(검색일: 2018년 10월 10일)

- 지난 2일(현지시간) 비탈리 베르케옌코 블라디보스톡 시장은 돌연 사퇴의사를 밝힘
  -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으로써 블라디보스톡 시민들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수행이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밝힘
  - 9월 말 푸틴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던 안드레이 타라센코 임시 연해주지사를 올렉 코즈먀코 사할린주사로 전격 교체했음
  - 이와 관련되어 블라디보스톡 시장 또한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현지 분위기도 있음

- 블라디보스톡시 하원은 베르케옌코 시장의 사퇴의사를 수용해 오는 14일 시점으로 해임키로 결정함

- 한편 블라디보스톡 하원은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신규 시장 임명'에 대한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며, 차기 블라디보스톡 시장선거는 12월 초 치러질 예정이라고 알려짐

▪ 사퇴의사를 밝힌 베르케옌코 시장은 올해 1월 28일 제8대 블라디보스톡 시장으로 취임했음

- 그는 1972년생으로 연해주 소재 극동주립대학교 정치학부를 졸업했으며, 1992년 블라디보스토크가 개방되자 자동차 수입유통 사업으로 성공한 기업인으로 현재 중장비까지 아우르는 지역 최대 자동차기업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참고자료 : https://www.kommersant.ru/doc/3758771(검색일:2018년 10월 3일)

http://zrpress.ru/politics/primorje_03.10.2018_91349_novogo-glavu-vladivostoka-vyberut-v-nachale-dekabrja.html

(검색일: 2018년 10월 5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 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주요 통계

2017년/2018년 1~8월 운송수단별 물동량

운송수단	2018년 8월 (단위: 백만 톤)	2017년 8월 대비 (단위: %)	2018년 7월 대비 (단위: %)	2017년 1월~8월 대비 2018년 1월~8월	2016년 8월 대비 (단위: %)	2017년 7월 대비 (단위: %)	2016년 1월~8월 대비 2017년 1월~8월
합계	754.2	1.1	2.3	2.0	2.0	2.9	2.3
철도	108.9	2.1	0.7	2.9	0.4	-0.3	3.0
도로	537.3	1.7	3.5	1.8	0.8	3.7	1.2
해상	1.8	-23.9	2.9	-18.5	19.7	5.2	15.2
국내 해상	16.1	-14.4	-1.8	-7.7	7.5	7.1	-4.9
항공	0.1	2.4	-0.5	1.0	14.6	-0.3	20.1
파이프라인 :	90.0	0.4	-2.1	3.4	10.0	1.7	7.2
- 가스	*39.1*	*-3.2*	*-2.5*	*5.1*	*18.5*	*6.5*	*13.2*
- 석유	*47.4*	*2.6*	*-1.3*	*0.8*	*3.3*	*-1.9*	*2.3*
- 석유제품	*3.5*	*12.8*	*-8.2*	*18.5*	*11.7*	*-1.6*	*1.4*

자료: 러시아 교통부 자료